

# 인기없는 대학 총학회장

## “취업 도움 안된다” 광주·전남 37곳 중 29곳 단독후보

극심한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이 학내문제에 이념보다 취업준비에 쏠리면서 대학 총학생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총학생회장 경력이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회장선거 출마자가 단 한 명 뿐이거나 아예 없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후보자는 단 한 명=올해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르는 광주·전남지역 37개 대학(전남대학 포함) 가운데 78.4%(29곳)는 후보가 한 명에 불과해 찬반투표를 치렀다.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합을 벌인 곳은 21.6%(8곳)에 그쳤다. 광주보건대·광주신학대 등 9개 대학은 아예 선관위 구성조차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인 대학은 올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회장 출마자가 없거나 줄다 보니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은 이듬해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전남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류선민(24·자연대학 지구환경과학부 4년)씨가 단독 출마,

22~23일 찬반투표를 벌였다. 조선훈(27·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4년)씨가 29일 치러질 회장선거에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학생들 외면=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 주축인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최근 회장선거 투표율이 50%대에 그치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3년간 30%대에 머

### 학생회 활동 내역

### 이력서에 안 적어

물고 있으며 서강정보대학도 40%에 불과하다.

광주대는 23일 실시된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까지 내걸었다. 투표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2007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70%, 2등 2명 40%, 3등 3명 20%, 4등 5명 10%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원인=취업이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영향이 가장 크다. 전남대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상 등 학내 문제에 꾸준히 참여는 하고 있지만, 결국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한 대기업 인사담당관계자는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이 신입사원 채용 시 결정 사유는 아니지만, 조직을 생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요즘은 학생들이 이력서에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혀 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45) 교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학생들의 관심사도 학교 내 문제보다는 사회진출이나 취미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45) 교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학생들의 관심사도 학교 내 문제보다는 사회진출이나 취미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연가투쟁’ 교사 처리 어떻게 되나?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송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11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핵심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하도록 돼 있다.

## 3회이상 가담 1,303명중 상당수 참여 정부 “원칙대로”...대규모 징계 불가피

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광주 26명, 전남 90명 등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 26명 모두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천 727명 가운데 광주 13명 등 모두 2천265명이 무단결근·조퇴하였으며 나머지 462명은 학교장 허가를 받아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2000년 이후 이번 연가투쟁 이전까지 연가투쟁 가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교사는 1천30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연가투쟁에 또다시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징계처리 지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도 긴급소집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의의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및 징계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 거리에 휘날리는 낙엽 11월 24일 (음 10월 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맑음	6~15℃
부산	구름맑음	5~15℃
대구	구름맑음	10~13℃
전주	구름맑음	8~14℃
대전	구름맑음	3~15℃
안동	구름맑음	3~15℃
충주	구름맑음	6~15℃
청주	구름맑음	6~14℃
포항	구름맑음	9~14℃
경주	구름맑음	3~15℃
울릉도	구름맑음	4~16℃
독도	구름맑음	4~12℃
제주	구름맑음	4~15℃
서울	구름맑음	5~16℃
인천	구름맑음	4~15℃
대전	구름맑음	5~16℃
전주	구름맑음	4~15℃
대구	구름맑음	5~16℃
부산	구름맑음	4~15℃
전남	구름맑음	4~15℃
전북	구름맑음	4~15℃
충남	구름맑음	4~15℃
충북	구름맑음	4~15℃
강원	구름맑음	4~15℃
경북	구름맑음	4~15℃
경남	구름맑음	4~15℃
제주	구름맑음	4~15℃

서울	맑음	10~29
부산	맑음	19~56
대구	맑음	131
전주	맑음	131
대전	맑음	131
안동	맑음	131
충주	맑음	131
청주	맑음	131
포항	맑음	131
경주	맑음	131
울릉도	맑음	131
독도	맑음	131
제주	맑음	131

## 엘니뇨 영향을 겨울 기온 평년보다 높아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현재 열대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고(高)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현상은 겨울철 동안 지속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기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가끔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 추위

지는 등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기상청은 전했다. 12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해 대체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온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광주시 동구청(청장 유태영)은 23일 관내 불우이웃 195세대에게 김장김치 1박스(15kg)씩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는 ‘광주·전남 김치산업육성사업단’, 동구 자원동 ‘좋은 동네 만들기’, 원불교 ‘원불공회’ 자원봉사회원 150여 명이 공동참여해 뜻깊은 점을 다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 1.95대1...2000년 이후 최고**  
학생 수 감소로 초등 교사 임용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 19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현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모집정원 4천339명에 총 8천463명이 응시,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79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와 대전이 각각 2.41대 1, 부산 2.07대 1, 인천과 충남 각각 2.05대 1, 서울 2.02대 1, 전북 1.98대 1, 경남 1.92대 1, 전남 1.9대 1 등의 순이었다. /연환스

## 전남 일선학교 운동장 잡초 제거 맹독성 농약 다량 사용

전남도내 일선 학교에서 운동장 잡초 제거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맹독성 농약(그라목손)을 다량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남도의회 강우석 의원(민중·영암)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장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라목손을 뿌려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안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13만500㎡를, 지난 2004년 여수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4만6천 500㎡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5·2006년 한국농약공업협회의 지침서에도 학생들이 뛰노는 운동장에는 그라목손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라목손(Gramoxone)은 식물의 잎에 한 방울이라도 튀면 금방 구멍이 날 정도로 독성이 강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불약’으로 불린다.

강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전남 시·군 학교에서 사용한 제조제 양은 881만579㎖나 돼 300㎖ 짜리 농약병으로 환산하면 3만 병에 육박한다며 농약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액으로는 2004년 3천80만원, 2005년 2천542만원, 2006년 2천708만원 등이었다. 그는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어린이와 학교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동구보건소 ‘치매 관리사업’ 행정혁신 최우수상

광주 동구보건소(소장 박형철)의 치매 관리 사업이 ‘2006 지지방정 혁신 한마당’에서 기초자치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보건소의 ‘빛고을 은빛 노후 관리사업’과 ‘노인 건강조례’ 등이 최우수 혁신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 발견,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사업. 동구보건소는 지난 2003년부터 노인 2576명을 조사해, 이중 치매 의심 노인 253명을 치료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체계적인 주민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또 의료계와 타 지자체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치매환자 관리 기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21~2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서울·광주·부산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협력·고객서비스혁신·행정 내부혁신·혁신 브랜드 4개 분야로 나눠 경쟁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기를 1대로

1. 에너지 절약: 난방기, 에어컨, 공기정화기 3대 1로 합쳐 사용 가능

2. 공기정화: 미세먼지, 냄새, 악취 제거

3. 난방: 겨울철 따뜻하게 난방 가능

4. 에어컨: 여름철 시원하게 냉방 가능

5. 공기정화: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

6. 디자인: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7. 가격: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 30% 이상 빛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ANTIQUE FURNITURE GAMING

1. 가죽 소파: 150,000원

2. 나무 테이블: 80,000원

3. 가죽 의자: 50,000원

4. 나무 책상: 120,000원

5. 가죽 소파: 200,000원

6. 나무 테이블: 100,000원

7. 가죽 의자: 60,000원

8. 나무 책상: 150,000원

문의: 955-0222, 080-701-7117